

체면지향행동의 이원구조모델 검증

이석재 · 최상진¹⁾

한국전산원 · 중앙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체면지향행동에 내재하는 심리구조가 구성적 체면지향행동과 방어적 체면지향행동으로 이원화되어 있음을 검증하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가정을 검증하기 위하여 2개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 1에서는 체면지향행동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남녀대학생 2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체면지향행동척도가 신뢰성과 타당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은 체면지향행동이 구성적 체면지향행동과 방어적 체면지향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가설을 지지하였다. 연구 2에서는 능력체면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긍정 또는 부정적일 때, 체면지향행동과 자존감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능력을 능동적으로 타인에게 드러내거나 드러내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대인관계상황에서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능력표현 방식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경우, 구성적 체면지향행동 변화와 방어적 체면지향행동 변화는 상관이 없었으며 자존감의 변화와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정적 평가를 받은 경우, 두 체면지향행동간에는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능력면에서 방어적으로 자신을 개념화할수록 자존감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에서 연구자들은 체면지향행동에 내재하는 심리과정에 대한 분석이 문화심리학적 관점에서 연구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주제어: 체면, 구성적 체면지향행동, 방어적 체면지향행동, 자존감, 자기제시 전략척도

체면은 사회적 관계형성 및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으로서 그리고 대인관계 양식을 설명하는 사회심리학적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체면이 사회심리학적 연구주제로서 깊이 다루어지지 못한 반면, 한국인의 의식구조, 행동양식, 문화 등에 대해서 연구하는 국내의 인문학자나 사회평론가, 외국인들에 의해서 대인관계에서 흔히 관찰할 수 있는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논의되었다(여동찬, 1987; 윤태림, 1986; 이규태, 1977; 최재석, 1989). 이들은 체면에 내재하는 심리적 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한국인의 사회적 특성으로

서 해석하는 데에 치중하였다. 최근 일부 사회심리학자들은 체면 개념에 내재하는 사회심리적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최상진, 2000).

체면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질문지를 사용하여 체면에 대해 일반인이 가지고 있는 표상을 조사하거나(최상진, 유승엽, 1992), 체면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는 것이다(진승범, 1995; 최창호, 1993).²⁾ 이들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분석방법은 빈도분석이나 상관분석이었다. 이러한 접근방법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들은 체면이 한국인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1) 연구1의 결과 일부는 Asian Social Psychology Association이 주최하고 2001년 7월 10일부터 13일까지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된 제4회 아시아 사회심리학 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다. 필자들은 연구1과 연구2의 자료수집을 도와준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김기범 조교와 대학원생들에게 감사를 포함한다.

자아존중감, 통제성향(최창호, 1993), 스트레스(최상진, 최인재, 김기범, 1999) 등의 심리적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였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체면연구들은 체면이 문화권에 따라서 그 형태나 기능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Choi, 2000).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Lian (face)과 Mian Zi (image) (Cheng, 1984), 일본에서는 Mentz (Lebra, 1976)가 체면의 한 형태로서 제안되었다. 한국인의 체면은 한국인에 독특한 것이라는 토착심리학(indigenous psychology)적인 관점에서 연구되거나(예, Kim & Berry, 1993), 다른 한편에서는 범문화적인 개념으로서 체면을 이해하면서도 각 문화 또는 민족에만 적용되는 특성을 탐색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후자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한국인이 사회 속에서 체험하고 공유하고 있는 체면의 구조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인이 이해하는 체면이 사회적 현상으로서 드러나는 데 관여되는 심리과정을 모델화하고, 심리과정을 보여주는 요인들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여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을 검증하고자 한다.

체면의 개념화

체면은 사전적인 의미로서 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얼굴이다. 체면의 심리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을 대하기에 떳떳하기 위한 체면거리, 즉 체면을 구성하는 요소(bases)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떳떳한 얼굴의 구성요소를 밝히는 것은 체면의 개념화뿐만 아니라 체면과 유사한 다른 개념과의 차별화에도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 한국인은 유교문화에 의해서 지배적인 영향을 받았다. 유교문화에서 체면은 서구에서 통용되어 온 사회적 얼굴(social face)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명예, 지위, 신분 등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Choi

& Kim, 2000). 유교문화권에 속하는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독립적이기보다는 의존적인 경향이 높고, 개인의 목적보다는 집단의 목적을 더 중요시한다(Triandis, 1995). 따라서 유교문화권에서 개인의 얼굴은 대인관계의 조화를 나타내거나 대인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하는 수단이면서 목적이 된다.

남을 대하기에 얼굴이 떳떳하다는 것은 그가 속한 문화권에서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판단기준에 맞게 행동을 한다는 자기지각이다.³⁾ 남을 대하기에 떳떳하기 위한 요소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판단기준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그 가치판단기준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찾는 한 방법은 일반 사람들에게 어떤 경우에 체면이 손상당하는 지를 물어보고 그 응답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Harre and Gillett(1999)는 특정 문화권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 법칙이나 규범(rules or norms)을 공유하고 이를 판단기준으로 하여 적합한 행동을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특정 문화에 속해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법칙과 규범이 사람들의 담론(discourse)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어떻게 함축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최상진과 유승엽(1992)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어떤 경우에 체면이 떨어지는지를 물어 보았다. 조사결과는 자신의 지위와 신분에 맞는 인격상의 행동규범을 이탈하거나 어겼을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경우(예, 거짓말이 진실로 밝혀진 경우), 자신의 신분과 지위에 적절한 능력을 해내지 못하였을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능력”에 문제가 있을 경우(예, 교수가 지식이 없을 때), 그리고 자신의 신분과 지위에 비해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을 때와 같이 “권위”에 문제가 있는 경우(예, 자신의 약점을 남에게 보이게 되는 경우)로 나타났다. 이 조사결과는 평범한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체면 표상에는 인격, 능력 및 권위가 체면을 구성하는

2) 이 척도가 갖는 특징은 체면이 갖는 속성을 측정항목으로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특성으로는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낮고 권위적이며, 체면은 타인의식측면이 강하고 의례적이며 형식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총 35개로 구성된 체면척도의 요인분석결과는 자기방어, 인격표출, 우월·지위의식 및 타인의식과 같이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개 요인간에는 정적 상관관이 있었으며 상관계수(r)는 .19에서 .35범위에 있었다.

3) 자신의 행동이 남 대하기에 떳떳하다는 판단을 하기 위한 정보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자신이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내재화한 양심이나 도덕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의 평가이다. 최상진(2000)은 자기 자신의 내면적 기준을 볼 때 떳떳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괴성 부끄러움을 느끼고 타인의 평가를 기준으로 볼 때 떳떳하지 않은 경우에는 창피성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보았다.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다. 이상의 결과로 보면, 체면은 어떤 사람의 신분과 지위에는 그에 적절한 인격, 능력 및 권위가 있다는 인식을 행위자와 상대방이 공통적으로 공유함으로써 형성되는 개념이다. 이러한 공유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사회적 얼굴로서 표상화시킨 것이 체면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남을 대하기에 떳떳하다는 판단은 “신분과 지위에 적절한 또는 상응하는 인격, 능력 및 권위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추론할 수 있다.⁴⁾

체면은 서구에서 연구되어 온 얼굴(face, Goffman, 1959) 개념과 유사하다. Goffman은 무대 위의 배우가 다양한 개성을 연출하듯이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얼굴을 연출(face work)한다고 보았다. 인상관리 이론(impression management theory)은 이러한 연출과정에 개입되는 과정을 사회심리학적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서 갖는 인상을 체계적이며 의도적으로 통제하려고 한다(Goffman, 1959). 특히, 자기중심적으로 자신이 타인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바라면서 의도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신의 진실한 측면(authentic)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성향성을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자기제시이론(self-presentation theory)이 제안되었다(Schlenker, 1980). 이들 두 이론은 대인관계에서 타인을 의식하고 타인이 행위자 자신에 대해서 갖는 인상이나 이미지를 통제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또한 이러한 통제를 위해서 사용되는 여러 책략(tactics)들이 같은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두 개념은 관련 문헌에서 흔히 혼용되고 있다.

인상관리이론과 자기제시이론에서 다루는 얼굴, 인상, 이미지는 어떤 행위자에 대해서 타인이 지각한 것이다. 행위자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기준에 맞추어 자기를 구성한다(Baumeister, 1982). 자기제시는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친구와 같이 알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중요하다(Brown & Garland, 1971). 또한,

4) 본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남을 대하기에 떳떳하다는 자기 지각은 자신의 신분과 지위에 적절한 또는 상응하는 인격, 능력 및 권위가 있는 지에 대한 판단”에 기초한다는 가정을 직접 검증하지 않았다. 또한, 떳떳하다는 자기지각과 체면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연구는 후속연구로서 제안한다.

상대에 따라서 사용하는 자기제시의 법칙이나 기준이 다를 수 있다. 타인에게는 호감받을 수 있도록 자신을 드러내지만, 친구간에는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Tice, Butler, Muraven, & Stillwell, 1995). 일부 사회심리학자들은 인상관리와 자기제시 개념을 가지고 기존의 사회심리학 연구주제인 공격성(Tedeschi & Felson, 1994), 인지부조화(Tedeschi & Rosenfeld, 1981), 취업인터뷰 상황에서의 행동(Stevens & Kristof, 1995) 등을 재해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두 이론의 지지자들은 인상관리나 자기제시가 일반 사람들이 흔히 경험하고 사용하는 개념으로 사람들의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고 또한 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개념임을 보였다(Baumeister, 1982; Schlenker, 1980; Tedeschi, 1981 참고).

한국에서는 체면이 대인관계에서 한국인의 행동과 의 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념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체면이 서구의 얼굴이나 인상, 이미지 등과 어떤 개념적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 주된 이유는 체면을 다루는 연구들이 체면의 개념적 구조나 체면에 내재하는 심리적 과정을 이론화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입증하는 연구활동이 미흡하였다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최상진(2000)은 동양의 체면과 서양의 얼굴, 자기제시개념을 비교하면서, 서양의 얼굴은 대인관계에서 자기에 대해서 타인이 형성하는 인상을 관리하려는 공구성적인 산물이며 자기 중심의 것으로 보았고,⁵⁾ 동양의 체면은 공구성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특정 사회적 또는 문화적 맥락에서 공유되는 신분과 지위와 결부되는 사회적 속성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 체면이 서구의 얼굴 또는 자기제시개념과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는 연구결과는 체면이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체면이 영향을 미치는 조건은 행위자의 직업, 지위, 행위 당사자

5) 서구의 사회적 얼굴은 대인관계에서 행위자가 타인의 가치나 기준에 부합되게 드러낸 행위자 자신의 인상이나 이미지이다. 이러한 사회적 얼굴은 대인관계의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타인에게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드러내어서(favorable self-presentation) 타인의 호감을 받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자기중심성(egotism)이 관여된다. 친밀도가 높아질수록 자기중심성은 대인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 (Colvin, Block, & Funder, 1995).

간의 친밀도, 행위자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최상진과 유승엽(1992)은 체면이 정치가, 교수, 국회의원, 의사 등의 전문직업을 가진 사람, 자존감(self-esteem)이 높은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보다는 지위가 높은 사람, 그리고 친밀도가 낮은 사람들에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체면이 대인관계에서 구성된 개념이면서도 사회적 신분과 지위 및 개인의 특성에 맥락화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회적 표상으로서 체면은 그러한 표상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어진 사회적 공간에서 자신의 신분과 지위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지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체면지향행동의 유형

사회적 상황에서 체면이 발생하는 형태는 누구의 체면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자신의 체면을 세우고 지키는 형태로서 “세우는 체면”과 “지키는 체면”, 타인의 체면을 지켜주고 세워주는 형태로서 “지켜주는 체면”과 “세워주는 체면”으로 구분된다(최상진, 2000; 최상진, 김기범, 2000). 이들 체면행위에 개입되는 공통 심리를 보면, 자신의 체면을 세우고 타인의 체면을 지켜주는 것은 자신이나 상대방의 신분과 지위에 걸 맞는 인격과 능력이 있음을 타인이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즉, 주어진 맥락에서 바람직한 특정 형태의 체면을 구성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이하 “구성적 체면지향행동”으로 명명함). 이와는 달리 자신의 체면을 지키고 타인의 체면을 세워주는 행위는 자신이나 상대방의 신분과 지위에 맞는 인격과 능력이 있음을 타인이 경시하거나 인식하지 못할 때, 이를 최소화하려는 행동이다(이하 “방어적 체면지향행동”이라고 명명함).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체면과 유사한 서구의 개념은 타인에게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looking glass self; Cooley, 1922)이다. 개인적 자기(personal self)가 사회적 자기(social self)로서 의미를 갖는 것은 행위자 자신의 인상에 대해서 타인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Arkin(1981)은 개인의 자기제시 경향성이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인정(social approval)을 얻기 위한 동기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그는 타인의 사회적 인정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특정한 모습을 구성하여 드러내 보이려고 하고(acquisitive self-presentation), 타인이 불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어적으로 자기를 드러낸다(protective self-presentation)고 제안하였다. 이석재(1996; Lee et al., 1999)는 자기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전략을 자기주장적인 전략(assertive self-presentation tactics)과 자기방어적인 전략(defensive self-presentation tactics)으로 범주화하였다.⁶⁾ 자기주장적 전략은 행위자가 구성하려는 자기의 모습 또는 정체성(identity)을 드러내려는 데 활용되는 전략적 행동이고, 방어적 전략은 타인에게 드러나는 자기의 모습 또는 정체성이 위협을 받게될 때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전략적 행동을 말한다. 이석재와 연구자들은 각각의 전략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고,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하여 자기제시전략이 이원구조로 되어 있음을 밝혔다. 자기제시전략의 이원구조는 한국 대학생(이석재, 1996)과 미국 대학생(Lee et al., 1999)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반복 검증되었다.

최상진(2000; 최상진, 김기범, 2000)은 체면에 개입되어 있는 심리과정을 이론화하면서 “체면 세우기”와 “체면 지키기”의 과정이 대인관계에서 작동함을 제안하였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체면 세우는 것은 사람들간에 공유되고 있는 체면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행동이고, 체면을 지키는 것은 공유되고 있는 체면의 이미지 관점에서 볼 때 자신의 체면이 손상당하거나 위협을 받을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았다. 즉, 체면과 인상관리, 자기제시에는 구성과 방어과정이 개입되는 것으로 추론된다. 체면 세우기에는 자기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그것을 구성하여 얻으려는 심리과정이 개입되고, 체면 지키기에는 자기방어적이며 자기를 보호하려는 심리과정이 개입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연구자들은 개인이 체면을 유지하려는 경향성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데에 내재하는 심리과정을 그림1과 같이 모델화하였다. 그림 1에서 보

6) 자기주장적 전략에는 변명, 정당화, 사전해명, 사과, 자기핸디캡(self-handicapping) 등이 있고, 자기방어적 전략에는 아첨, 위협, 간청, 권리주장, 자기고양, 배척, 모범 보이기 등이 속한다.

듯이, 체면지향행동은 체면지향행동이 지위와 신분에 적절한 인격, 능력 및 권위가 있음을 보이려고 하는 “구성적 체면지향행동”과 인격, 능력 및 권위가 경시되거나 인식되지 못할 때 이를 최소화하려는 체면행동으로서 “방어적 체면지향행동”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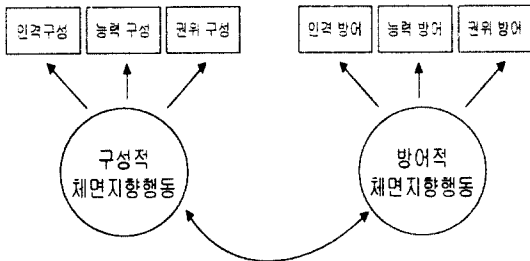


그림 1. 체면지향행동의 이원구조 모델

본 연구에서 제안된 모델을 검증하기 위하여 두 개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1에서는 체면지향행동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고, 체면지향행동척도가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는 경향성을 측정하는 다른 척도들과의 상관분석을 통하여 체면지향행동척도의 타당도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체면지향행동의 모델을 검증하는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2에서는 실험연구를 통하여 체면지향행동의 이원구조에 대한 타당도를 재검증하였다.

연구 1 : 체면지향행동척도의 개발과 구조 검증

연구 1의 주된 목적은 체면지향행동의 빈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개발하고, 다른 성격척도들과의 상관을 분석하는 것이다. 타당도 분석을 위해서 선정된 성격척도들은 자기제시적 경향성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Arkin (1980)은 자기제시경향성이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인정을 받으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동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긍정적으로 드러내는(favorable self-presentation) 행동으로 나타난다(Baumeister, 1982). 최상진(1997)은 한국인의 체면욕구는 인격적 성숙욕구와 인정의 사회적 성취욕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개념화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구성적 체면지향행동은 서양인의 자기제시경향을 측정하는 사회적 호감

도척도(Crowne & Marlowe, 1964), 자기검색척도(Snyder, 1974), 자기제시척도(이석재, 1996; Lee et al., 1999)와 정적인 상관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사회적 호감도는 타인의 사회적 승인을 얻으려는 동기뿐만 아니라 타인의 사회적 불인정을 회피하려는 동기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방어적 체면지향행동은 사회적 호감도척도와 부적인 상관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1에서는 자기제시경향성을 측정하는 3개의 척도를 준거변인으로 하여 체면지향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체면지향행동의 모델로서 체면지향행동이 구성적 체면지향행동과 방어적 체면지향행동으로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방법

참가자. 서울에 있는 종합대학교에 재학하는 202명의 (남자 = 98명, 여자 = 104명)학생이 이 연구에 참가하였다. 남녀 대학생의 평균 나이는 21.3세였다($SD = .15$).

조사절차. 본 연구는 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 설문조사는 정규수업시간 중에 실시되었다. 먼저 연구자는 참가자에게 다음과 같이 조사의 목적과 응답요령을 소개하였다.

안녕하십니까?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조사는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응답 내용과 개인정보(학번, 성별, 및 나이)는 절대로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본 조사의 응답자료는 연구자만이 보관하고 활용할 것입니다. 다음의 사항에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학번, 성별, 나이를 응답하도록 한다). 감사합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를 물어 보는 여러 질문들이 있습니다. 지시문을 상세히 읽으시고 각 질문에 솔직히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질문에 정답이나 오답은 없습니다. 한 문항도 빠짐이 없이 모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여 주십시오.

연구자는 조사대상자들이 응답을 모두 마쳤다고 판단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응답을 하지 않은 문항이 있는

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설문조사를 모두 마친 후, 조사대상자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조사목적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조사도구. 조사 질문지는 결장을 포함하여 모두 11쪽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결장에는 “자기인식조사지”라는 제목 아래에 지시문이 있었다. 1쪽에서 3쪽까지는 구성적 체면지향행동과 방어적 체면지향행동을 나타내는 43개 문항이 있었다. 구성적 체면지향행동은 어떤 사람이 신분에 걸 맞는 인격과 능력 및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어 보여 주는 의도성을 내포한 것이다. 인격에 관한 것이 7개(예,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책임을 지려고 한다”), 능력에 관한 것이 7개(예, “나의 능력이 남보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 보인다”), 권위에 관한 것이 7개(예,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근엄하고 여유가 있는 표정을 짓는 편이다”)로 구성되어 있다. 방어적 체면지향행동은 어떤 사람이 인격, 능력 및 권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경시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성을 내포한 것이다. 인격에 관한 것이 8개(예,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할 때, 겸허한 태도로 받아들인다”), 능력에 관한 것이 7개(예, “나의 약점은 가능한 다른 사람에게 들어내지 않으려고 한다”), 권위에 관한 것이 7개(예, “내 위신이 떨어질 수 있는 일을 해야 할 경우에 이런 사실을 남에게 말한다”)이다. 각각의 체면지향행동을 하는 경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참가자들로 하여금 각 행동진술문에 대해서 그러한 행동을 어느 정도 하는지 그 정도를 9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다. 평정은 1(매우 드물게)에서부터 9(매우 자주)까지였다. 나머지 4쪽에서 11쪽까지는 체면지향행동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한 척도들이 포함되었다. 이 척도들은 자기검색척도(Snyder, 1974), 사회적 호감척도(Crowne & Marlowe, 1964) 및 자기체시척도(이석재, 1996)이었다. 연구자들은 앞의 3개 척도의 경우, 이석재(1996)의 연구에서 한국어로 번역되어 사용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결과와 논의

문항의 선정. 체면지향행동을 측정하는 적절한 문항

의 선정기준은 개별문항과 그 문항이 속해있는 두 하위 체면의 점수와의 상관, 개별문항과 전체 문항 총점간의 상관 및 내적일치도(Cronbach, 1951)를 높이는 문항이었다. 구성적 체면지향행동점수와 방어적 체면지향행동 점수는 전체 문항 총점과 각각 .89, .89의 높은 상관을 보였다($p < .001$). 개별 문항은 전체 문항 총점과도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일치도와 각 하위척도에 대한 내적일치도를 계산하였다. 방어적 체면지향척도의 경우, 내적일치도를 높이기 위하여 1개 문항을 제거하였다. 따라서 체면지향행동을 나타내는 42개 문항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세부문항은 부록 참고).

내적일치도. 최종적으로 선정된 문항을 분석한 체면지향행동척도와 그 하위척도들에 대한 평균치, 표준편차 및 내적일치도가 표 1에 나타나있다. 표 1에서 보듯이 전체 문항에 대한 내적일치도는 .83으로 높게 나왔다. 이 결과는 체면지향행동이 일차원일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체면지향행동이 구성적 체면지향행동과 방어적 체면지향행동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구성적 체면지향행동척도는 인격, 능력 및 권위에 대한 구성적 체면지향행동 점수들을 평균한 점수로 나타낸다. 방어적 체면지향행동척도는 인격, 능력 및 권위에 대해서 타인의 경시나 부정적인 평가를 최소화하려는 행동들에 대한 점수의 평균으로 나타낸다. 구성적 체면지향행동척도와 방어적 체면지향행동척도의 내적일치도는 각각 .75와 .74로서 적절하게 나타났다(Nunnally, 1978).

표 1. 체면지향척도의 평균, 표준편차 및 Cronbach의 alpha

척도	평균	SD	α
1. 전체	5.93	.63	.83
2. 구성적 체면지향	5.96	.72	.75
인격 구성	6.06	.92	.56
능력 구성	6.15	.90	.53
권위 구성	5.67	.92	.54
3. 방어적 체면지향	5.90	.71	.74
인격 방어	6.10	1.00	.70
능력 방어	5.38	.80	.53
권위 방어	6.23	.89	.54

주: 척도는 1(매우 드물게)부터 9(매우 자주).

다른 척도와의 관계. 표 2에서 보듯이 사회적 호감 척도는 체면지향행동척도의 총 점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기대한 대로 구성적 체면지향척도는 사회적 호감척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인($r = .17, p < .01$) 반면, 방어적 체면지향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상관을 보였다($r = -.15, p < .05$). 구성적 체면지향행동척도와 방어적 체면지향행동척도가 사회적 호감척도와 서로 다른 상관을 보인 것은 체면의 두 하위척도가 서로 다른 구성개념을 측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기검색척도는 체면지향척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체면지향행동의 두 하위척도와도 정적인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기제시척도는 체면지향행동척도와 높은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체면지향행동의 두 하위척도하고도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 결과는 체면지향행동과 자기제시가 유사한 개념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자기제시척략척도를 개발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던 이석재(1996)와 Lee 등의 연구(1999)에서 자기제시척략척도는 사회적 호감척도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일관되게 나타났다(각각 $-.29, -.26, 모두 p < .01$).

표 2. 체면지향행동척도와 다른 척도간의 상관

척도	체면지향행동척도			사회적 호감척도	자기검색척도	자기제시척도
	전체	구성적	방어적			
체면지향행동척도(전체)	-	.89***	.89***	.01	.30***	.48***
구성적 체면		-	.57***	.17*	.20**	.26***
방어적 체면			-	-.15*	.33***	.59***
사회적 호감척도				-	-.26***	-.42***
자기검색척도					-	.41***
자기제시척도						-

주. 척도는 1(매우 드물게)부터 9(매우 자주).

* $p < .05$; ** $p < .01$; *** $p < .001$.

Snyder(1974)의 자기검색척도는 자기제시 경향성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자기검색척도의 구조적 요인을 밝히려는 연구들은 척하는 능력(acting ability)이 그 척도의 중요한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임을 밝혔다(Briggs, Cheek, & Buss, 1980; Lennox & Wolfe, 1984). 이러한 능력은 무대 위의 연극배우와 같이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특정인물의 개성을 연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Snyder(1974)는 자기검색척도가 사회적 호감도와 부적 상관을 보임에 대해서 자기를 제시하거나 검색하는 데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사회적으로 호감받는 행동을 한다고 보고하는 경향성이 적다고 해석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은 체면지향행동척도는 자기제시경향성을 측정하는 사회적 호감척도, 자기검색척도, 자기제시척도 등과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체면지향행동척도의 차원. 체면은 남 대하기에 몇몇한 얼굴로서 체면이 손상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남 대하기에 몇몇하도록 주어진 맥락 속에서 자신의 신분과 지위에 적절한 행동을 보이려할 것이다. 만일 이것이 유일한 동기라면, 체면지향행동척도는 일차원구조를 가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 체면지향행동척도의 전체문항들이 높은 내적일치도($\alpha = .83$)를 보인 것은 체면지향행동이 일차원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구성적 체면지향행동이 사회적 호감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방어적 체면지향행동척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인 점은 체면지향행동이 이차원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들 두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3개의 구성적 체면지향행동과 3개의 방어적 체면지향행동간의 상관을 입력자료로 활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LISREL Windows용 8.30판을 사용하였다. 계산방법은 maximum likelihood방법을 사용하였다. 단일요인모델의 가설은 한 개의 요인이 6개 하위체면지향행동들의 공변량을 의미있게 설명한다는 것이다. 2요인모델의 가설은 두 개의 요인이 6개 하위체면지향행동들의 공변량을 의미있게 설명한다는 것이다. 두 모델의 부합도 검증은 여러 가지 기준치를 사용하였다(Bollen, 1989). 먼저, 전통적인 χ^2 의 부합치를 사용하였다.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χ^2 값은 해당 모델이 얻어진 자료와 잘 부합됨을 나타낸다. 다음으로는 χ^2/df 비를 사용하였다. 이 비율치가 2.0보다 작으면 부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GFI (goodness of fit index; Jöreskog & Sörbom, 1996), CFI (comparative fit index; Bentler, 1990), NFI (normed fit index)와

RMR(root mean square ratio)(Bentler & Bonett, 1980)을 사용하였다. 앞의 세 기준치 값이 .90보다 크면 해당 모델의 부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 기준치 가운데 χ^2 와 GFI는 표집의 크기에 의해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이에 비해, CFI와 NFI는 표집의 크기에 비교적 덜 영향을 받는다 (Bollen, 1989). RMR은 .05이하 일 때, 측정오차가 적은 것으로 해석한다.

두 가설을 검증한 결과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2에서 보듯이 단일요인가설의 $\chi^2(9)$ 는 47.65, $p < .001$ 이었다. 이 가설에 대한 χ^2/df 비는 2.0보다 크고, GFI의 부합도는 높으나, CFI, NFI값은 .90보다 작게 나와 단일요인모델의 부합도가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RMR도 .054로 기준치보다 다소 높았다. 회귀계수는 모두 유의미하였다. 이 결과는 각 체면지향행동이 한 개의 요인에 유의미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단일요인 모델의 경쟁모델인 2요인모델을 검증한 결과가 그림2에 함께 제시되어 있다. 경쟁모델인 2요인모델의 $\chi^2(8)$ 는 34.25, $p < .001$ 이었다. 이 가설에 대한 χ^2/df 비는 2.0보다 컸으나, GFI, CFI, NFI값은 모두 .90 이상의 높은 부합치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RMR도 .048로 낮았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성적 체면지향행동은 모두 요인 1에 부하되었고 방어적 체면지향행동은 모두

요인 2에 부하되었다. 이들 두 요인은 유의미한 상관 ($r = .81$)을 보였고 변량의 66%를 공유하였다.

모델2의 부합도가 모델1의 부합도보다 통계적으로 우수하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체 χ^2 차이를 검증하였다 (Anderson & Gerbing, 1988; Bentler & Bonett, 1980; Breckler, 1990). 두 모델의 χ^2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chi^2(1) = 13.40, p = .025$. 이 결과는 2요인모델이 단일요인모델보다 6개 체면지향행동간의 공변량을 보다 잘 설명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모델과 측정된 자료간의 부합정도를 나타내는 GFI, CFI, NFI, RMR 값도 2요인모델이 단일요인모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구성적 체면지향행동과 방어적 체면지향행동이 서로 관련되어 있지만 체면지향행동을 구성하는 서로 다른 하위개념임을 시사해 준다.

연구 2 : 능력체면에 대한 타인의 평가 자존감 지각에 미치는 영향

연구 2의 주된 목적은 구성적 체면지향행동과 방어적 체면지향행동이 체면지향행동의 하위개념으로서 서로 다른 구성개념임을 밝히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대인 관계에서 능력을 특정한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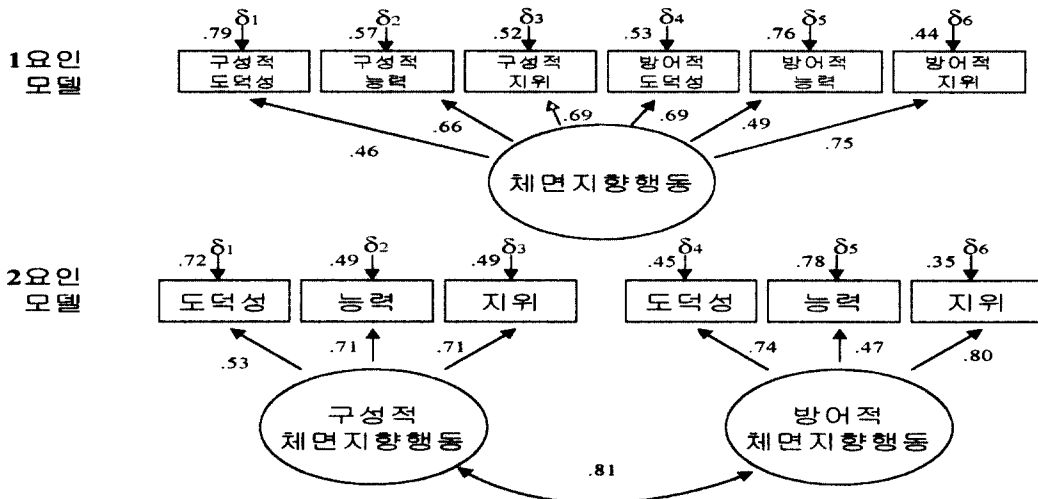


그림 2. 체면지향행동 모델의 검증. 1요인: $\chi^2 = 47.65, p = .001, df = 9, GFI = .93, CFI = .88, NFI = .86, RM = 34.25, p = .001, df = 8, GFI = .95, CFI = .92, NFI = .90, RMR = .048$.

직한 상황에서 한 개인의 능력체면에 대해서 타인이 긍정 또는 부정적 평가를 하는 경우, 구성적 또는 방어적 능력체면에 대한 자기지각과 자존감(self-esteem) 변화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어떤 상황에서 특정행위가 마땅히 취해야하는 경우 자의식과 체면이 개입된다(최상진, 2000). 그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특정행위를 취함으로써 체면을 지키려고 한다. 타인의 평가가 긍정적일 때는 체면이 지켜지고, 타인의 평가가 부정적일 때는 체면이 손상당하게 된다. 따라서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로 체면이 손상당하는 경우, 체면을 방어하기 위한 인지적 노력이 일어날 것이다. 타인의 평가가 긍정적인 경우에는 구성적 체면행동과 방어적 체면행동에 대한 자기경험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에 대한 자기개념(self-concept)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타인의 평가를 받기 전과 차이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타인의 평가가 부정적일 때에는 방어적인 인지적 노력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서 방어적 체면지향행동에 대한 자신의 경험정보를 재구성하여 자기에 대한 개념화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경우에 방어적 체면지향행동의 변화는 자존감의 변화와 정적인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eary, Tambor, Terdal 와 Downs(1995)는 사람들이 타인으로부터 배척되고(social exclusion) 있다고 느낄수록 자존감을 낮게 지각하는 것을 보였다. 그들은 다른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어떤 사람이 처하고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측정기(sociometer)와 같은 것이 자존감이라고 보았다. 사회관계측정기모델에 따르면, 타인의 평가가 자존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체면은 긍정적 자기경험과 자기 자신에 대한 타인의 긍정적 평가를 지향하고 있다. 최상진(2000)은 타인의 평가가 부정적일 때 부끄러움을 느끼고, 타인의 평가가 긍정적일 때 떳떳함을 느낀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에 대해서 직접적인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자들은 이러한 가정을 검증하고, 아울러 타인의 평가에 의해서 체험되는 감정이 자기 자신의 자존감 지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자들은 부끄러움을 느낄수록 자존감을 낮게 지각하고, 떳떳함을 느낄수록 자존감을 높게 지각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 2에서는 이러한 가정들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바람직한 체면 유형(구성적 체면조건과 방

어적 체면조건) X 타인의 평가(긍정적 평가조건과 부정적 평가조건)를 조작하는 요인설계를 하였다.

방 법

참가자. 서울에 있는 종합대학교에 재학하는 남자 대학생 52명이 참가하였다. 각 실험조건에 13명씩 무선으로 할당되었다.

실험절차. 실험실에 실험참가자가 도착하면 실험자는 실험참가자가 소속한 대학본부가 원만한 대학생활과 대학생의 사회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기초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목적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실험참가자는 대학생활 중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 처신하고 적응하는 바람직한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신분과 지위에 걸맞는 능력을 자신있게 그리고 분명하게 걸로 들어내어 보여주는 것(이하 “구성적 체면조건”) 또는 자신의 신분과 지위에 걸맞는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신의 능력을 걸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하 “방어적 체면조건”)이라는 연구결과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 실험자는 실험참가자에게 참가자의 적응능력을 상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상담전문가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소개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소개서는 “개인소개서”라는 제목 하에 실험참가자의 학번, 학과, 성별, 취미를 기록하도록 구성되었다. 그리고 연구 1에서 개발된 체면지향척도 28개 문항⁷⁾이 포함되어있다. 참가자들은 각 문항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정도를 1(매우 드물게)로부터 9(매우 자주)까지 9점 척도 상에서 표시하였다. 이들 척도와 함께 Rosenberg(1979)의 자존감척도 문항 10개가 제시되었다. 이 척도에 대한 응답은 1(아주 반대)로부터 5(아주 찬성)까지 5점 척도 상에서 얻어졌다. 마지막으로 응답자들은 자신의 대학교 평균 성적을 1(E학점)에서 5(A학점)까지의 범위에서 해당하는 것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 조사는 실험참가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7) 실험참가자에게 제시된 체면지향행동척도 문항들은 연구 1에서 개발된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구성적 체면지향행동척도에서 능력과 관련된 7개 문항, 인격과 관련된 7개 문항, 그리고 방어적 체면지향행동척도에서 능력과 관련된 7개 문항, 인격과 관련된 7개 문항 등 모두 28개 문항이었다.

제시되었다.

실험자는 실험참가자에게 개인소개서를 상담전문가에게 전달하고, 상담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오겠다고 말하고 실험실을 나갔다. 실험자는 3분 후에 “대인관계 성숙도 평가서”라는 제목하의 상담전문가의 평가서를 가지고 돌아와서 실험참가자에게 전달하고 참고하도록 지시하였다. 상담전문가의 평가서는 사전 계획에 따라서 실험자가 옆 방에서 작성한 것이다. 실험자는 평가서에 실험참가자의 학번을 기록하고, 대인관계에 대한 평가를 적응성, 사교성, 포용성, 진실성 및 개방성측면에서 1(매우 부족)에서부터 5(매우 우수)까지 5점 척도 상에서 계획된 평가내용을 기록하였다. 긍정적인 평가의 경우는 각 평가항목에 대해서 7, 6, 6, 5, 5점에 표시하였고 부정적 평가의 경우는 2, 2, 2, 3, 2점에 표시를 하였다. 아울러 종합평가란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를 기록하였다. 긍정적 평가의 경우, “자기의 능력을 필요한 만큼 적절히 드러내는 편임. 대인관계 적응이 원만함”(구성적 체면조건), “자기의 능력을 필요한 만큼 적절히 드러내지 않는 편임. 대인관계 적응이 원만함”(방어적 체면조건)와 같이 제공하였다. 부정적 평가의 경우, “자기의 능력을 필요한 만큼 드러내지 못하는 편으로 바람직하지 않음”(구성적 체면조건), “자기의 능력을 다소 불필요하게 드러내는 편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대인관계 적응이 원만하지 않음”(방어적 체면조건)과 같이 기록하였다.

잠시 후 실험자는 참가자에게 대인관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말하면서 “대인관계에 대한 나의 의견”이라는 제목이 있는 한 묶음의 조사지를 전달한다. 이 조사지는 모두 4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본 연구에서 조작한 실험상황과 상담전문가의 평가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문항, 상담전문가의 평가서를 받고 느낀 점(창피하다, 떳떳하다 등 8개 감정)⁸⁾, 대

학생이 자신의 능력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방법, 대학본부가 개발하는 대인관계 적응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소개서에 포함되어 있는 Rosenberg(1979)의 자존감 척도 문항(10개)과 체면지향행동척도 문항(28개)이 다시 제시되었다. 실험자는 실험참가자가 응답을 모두 마쳤다고 판단되었을 때, 다시 한번 응답을 하지 않은 문항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연구자는 전체 실험이 종료된 후에 실험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질의를 받았다.

결과와 논의

조작검증. 능력관리방식에 대한 조작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학본부는 대인관계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였다. 응답은 1(표현을 자제)로부터 7(능동적으로 표현)까지 7점 척도 상에서 얻어졌다. 이 응답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능력관리방식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일원변량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는 구성적 체면조건($M = 5.92$)에 있는 참가자들이 방어적 체면조건($M = 5.35$)에 있는 참가자들보다 자신의 능력을 능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F(1, 51) = 3.62, p = .06$. 또한 방어적 체면조건에 있는 실험참가자들은 능력표현을 자제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한 능력관리방식이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상담전문가의 평가에 대한 조작을 검증하기 위하여 “당신의 대인관계 성숙도에 대한 상담전문가의 평가는 어떻습니까?”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였다. 응답은 매우 부정적-매우 긍정적, 적응력 낮음-적응력 높음, 매우 폐쇄적-매우 개방적 등의 3개 척도로 얻었다. 각 척도에 대한 각 응답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평가자의 평가를 독립변인으로 하는 다변인변량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변인변량분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Wilks's Lamda = .19, $F(3, 48) = 66.65, p < .001$. 일원후속변량분석(univariate follow-up test)은 상담전문가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은 조건의 실

8) 타인의 평가를 받은 후에 경험되는 떳떳함과 부끄러움을 측정하기 위하여 안신호·이승혜·권오석(1993)의 정서구조연구에서 “떳떳하다”와 같은 요인으로 묶이는 “곱힘이 없다”, “자신있다” 등 3개의 정서, “부끄럽다”와 같은 요인으로 묶이는 “창피하다”, “쑥스럽다” 등 3개의 정서를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그 이외에 “화나다”와 “불쾌하다”를 추가하였다. 그러나 이들 두 정서에 대한 점수는 분석에 사용하지 않았다.

험참가자들이 부정적 평가를 받은 조건의 실험참가자들보다 상담전문가의 평가가 긍정적이고($M = 5.69$ 대 2.54), 적응력이 높고($M = 6.58$ 대 2.50), 매우 개방적($M = 5.04$ 대 2.69)이라고 응답하였다.

타인의 평가에 따른 능력체면과 자존감 변화. 대인관계 적응력에 대한 상담전문가의 평가가 실험참가자의 능력체면과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먼저 평가를 받기 전과 받은 후의 능력체면에 대한 자기지각 차이를 구성적 체면과 방어적 체면에 대해서 각각 산출하였다. 이어서 각각의 능력체면지향행동 점수차이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타인의 평가를 독립변인으로 하는 다변인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타인의 평가에 따른 점수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10$).⁹⁾ 평가를 받은 전후에 두 하위척도의 평균점수의 차이를 보면, 평균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긍정적 평가: 구성적 능력체면행동, $-.12$; 방어적 능력체면행동, $-.02$; 부정적 평가: 구성적 능력체면행동, $-.21$; 방어적 능력체면행동, $.02$). 즉, 평가를 받은 후에 능력체면을 구성하려는 경향은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가 전후에 얻어진 자존감 점수의 차이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타인의 평가를 독립변인으로 하는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도 타인의 평가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10$).¹⁰⁾ 평가 전후에 얻어진 자존감 평균점수의 차이($.14$)를 보면, 평가를 받은 후에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 타인의 평가를 받은 후 체면조건과 타인평가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구성적 능력체면행동과 방어적 능력체면행동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타인의 평가를 받기 전의 이들 점수를 공변인(covariate)로 하는 다변인 변량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도 두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p > .10$). 타인의 평가를 받은 후 자존감에 대한 측정치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평가받기 전의 자존감 측정치를 공변인으로 하는 경우에도 유의미한 주효과나 상호작용효과는 없었다.

10) 본 연구에 대한 익명의 평가위원이 지적하였듯이 자존감의 변화에 차이가 없는 것은 전문가의 평가에 대한 신뢰감의 결여 때문일 수 있다. 본 연구의 실험이 종료된 후 실험참가자의 의견을 들어 보면, 이번 전문가의 평가가 자신의 성격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었다는 의견도 있었고 이와 반대되는 의견도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전문가 평가의 신뢰감을 측정하고 자료분석시 이를 통제하는 방향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능력체면변화와 자존감 변화간의 상관. 자신의 대인관계적응 능력에 대해서 타인으로부터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를 받기 전과 받고 난 후 자신에 대한 묘사(능력체면)와 자존감의 변화간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실험참가자들이 상담전문가의 평가를 받기 전에 자신을 묘사하기 위해 얻어진 체면지향행동 점수와 평가를 받은 후에 측정된 체면지향행동 점수간의 차이를 구하였다. 또한, 평가를 받기 전의 자존감 점수와 받고 난 후의 자존감 점수간의 차이를 구하였다. 이들 두 차이 값이 갖는 상관을 계산하였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을 때에는 구성적 능력체면지향행동의 변화점수와 방어적 체면지향행동의 변화점수와 상관이 없었으며, 구성적 또는 방어적 능력체면지향행동점수의 변화정도는 자존감의 변화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때에 구성적 능력체면지향행동의 변화점수는 방어적 능력체면지향행동의 변화점수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r = .42$)이 있고, 방어적 능력체면지향행동점수의 변화는 자존감의 변화크기와 정적 상관($r = .57$)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실험참가자들이 상담전문가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는가에 따라서 개인이 체험하는 내용이 상이함을 보여준다. 상담전문가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을 때에는 자신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경험되는 변화는 자존감의 변화 정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신의 능력체면을 지키기 위하여 방어적으로 자신을 묘사하고, 능력면에서 방어적으로 자신을 묘사할수록 경험되는 자존감이 함께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능력체면행동변화와 자존감 변화간의 상관

체면지향행동	구성적	방어적	자존감 변화
	체면지향행동	체면지향행동	
긍정적 평가($n = 26$)			
구성적 체면지향행동	-	.00	-.09
방어적 체면지향행동	-	-	.19
부정적 평가($n = 26$)			
구성적 체면지향행동	-	.42*	.27
방어적 체면지향행동	-	-	.57**

주. * $p < .05$, ** $p < .01$.

타인의 평가에 따른 감정경험. 실험참가자들이 상담 전문가로부터 대인관계 적응력에 대한 평가를 받고서 느낀 감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떳떳함(떳떳하다, 굽힘이 없다, 자신있다)과 부끄러움(창피하다, 부끄럽다, 쑥스럽다)에 대해서 1(아주 그렇지 않다)로부터 7(아주 그렇다)까지 7점 척도 상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떳떳함을 나타내는 3가지의 감정의 내적일치도는 .85,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3가지 감정의 내적일치도는 .81이었다. 따라서 이들 각각의 평균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체면조건과 타인평가를 독립변인으로 하는 다변인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타인평가의 주효과 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Wilks's Lamda = .65, $F(2, 47) = 12.47, p < .001$. 주효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원 후속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에서 보듯이, 실험참가자들은 부정적 평가($M = 4.64$)를 받았을 때보다 긍정적 평가($M = 5.50$)를 받았을 때 떳떳함을 느꼈으나, $F(1, 48) = 25.17, p < .001$, 긍정적 평가($M = 1.88$)를 받았을 때보다 부정적 평가($M = 3.56$)를 받았을 때 더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응답하였다, $F(1, 48) = 4.95, p < .05$.

표 4. 타인의 평가에 따른 감정 체면

느낀 감정	부정적 평가		긍정적 평가		$F(1, 48)$
	<i>M</i>	<i>SD</i>	<i>M</i>	<i>SD</i>	
떳떳함	4.64	1.59	5.50	1.25	25.17***
부끄러움	3.56	1.56	1.88	.85	4.59*

주. * $p < .05$, *** $p < .001$.

경험된 감정과 자존감 변화간의 상관. 실험참가자들이 상담전문가로부터 자신의 대인관계 적응력에 대한 평가를 받고 느낀 감정이 자신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험된 감정과 자존감 변화간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자존감의 변화는 상담전문가의 평가를 전후하여 얻어진 자존감 점수의 차이로 측정하였다. 상관분석결과는 부정적 평가를 받았을 때에 떳떳함과 자존감 변화간에 상관관계($r = .06$)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끄러움과 자존감 변화간에는 상관은 있으나($r = -.12$)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9$). 타인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았을 때 떳떳

함과 자존감 변화간에 정적인 상관은 있었으나($r = .23$)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고, 부끄러움과 자존감 변화간에는 상관($r = .06$)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총 합 논 의

본 연구는 체면의 개념적 구조와 체면의 심리적 기능을 경험적으로 밝혀려는 첫 연구로서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체면지향행동이 구성적 체면지향행동과 방어적 체면지향행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원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체면지향행동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고 개발된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개발된 척도를 사용하여 체면지향행동의 모델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 1이 수행되었다. 조사연구로 진행된 연구 1에서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체면지향행동척도가 높은 내적일치도와 타당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확신적 요인분석은 체면지향행동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2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가정을 지지하였다. 연구 2에서는 능력체면에 대한 타인의 평가가 자존감에 미치는 과정에 내재하는 심리과정을 밝히려고 하였다. 실험연구의 결과는 타인의 평가가 부정적일 때, 사람들은 방어적 체면지향행동으로 자신의 개념을 재구성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러한 경향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인의 평가가 긍정적일 때, 떳떳함을 느끼고 타인의 평가가 부정적일 때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평가로 경험된 감정은 자존감의 변화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는 없었으나, 떳떳함을 느낄 때에는 자존감이 높아지고, 부끄러움을 느낄 때에는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11) 경험된 감정과 타인평가 후 지각된 자존감의 상관관계에서 타인의 평가를 받기 전의 자존감 점수를 통제하는 부분상관(partial correlation)을 분석한 경우에도 상관의 방향과 크기는 유사하였으며, 상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부정적 평가인 경우, 떳떳함과 자존감 $r = .20$, 부끄러움과 자존감 $r = .10$; 긍정적 평가인 경우, 떳떳함과 자존감 $r = .06$, 부끄러움과 자존감 $r = -.16$, 모두 $p > .10$).

먼저, 체면지향행동척도는 자기검색척도 및 자기제시척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체면지향행동척도가 행위자의 인상관리 경향성을 측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인관계에서 행위자는 상대방이 행위자 자신에 대해서 갖는 인상을 관리하고자 한다(Goffman, 1959). 체면은 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얼굴이며 도리이다. 따라서 행위자는 특정상황에서 타인의 눈을 의식하게 되고 사회적 및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행동을 보임으로써 타인이 행위자 자신에 대해서 갖는 인상을 관리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자기검색척도와 자기제시척도는 사회적 호감척도와 부적 상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면지향행동척도는 사회적 호감척도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체면지향행동척도의 하위척도인 구성적 체면지향행동척도는 사회적 호감척도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방어적 체면지향행동척도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 결과로 보면, 구성적 체면지향행동척도는 타인의 사회적 승인을 얻으려는 경향성을 측정하고, 방어적 체면지향행동척도는 타인의 사회적 불인정을 피하려는 경향을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자기검색척도(Snyder, 1974)와 자기제시척도(이석재, 1996; Lee et al., 1999)는 사회적 호감척도와 부적 상관이 있었다. 이 결과는 체면지향행동척도가 자기검색척도 및 자기제시척도가 측정하는 것과 다른 개념을 측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회적 호감척도, 자기검색척도, 자기제시척도는 모두 자신이 타인에 의해 어떻게 지각되고 평가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과 타인이 형성하는 인상을 체계적으로 통제하려는 경향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타인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검색하고, 타인이 자신에 대해서 특정한 방향으로 인상을 형성하도록 행동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호감을 받는 행동을 한다고 보고하는 경향이 적었다(이석재, 1996; Lee et al., 1999; Snyder, 1974). 이러한 경향은 본 연구 1에서도 나타났다. 그러나 체면지향행동의 경우, 방어적 체면지향행동만이 사회적 호감척도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 결과는 본 연구의 가정과 일치하는 것이다. 자신의 신분과 지위에 맞는 인격과 능력과 권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타인이 경시하거나 부정적일 때, 이러한 타인의 판단을 최소화

하는 방법은 자신의 체면을 방어하는 것이다. 즉, 자신의 체면거리를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자기검색척도와 자기제시척도가 사회적 호감척도와 부적 상관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는 서구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적 얼굴은 동양에서 다루는 사회적 얼굴과는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서구에서 행위자가 타인이 자신에 대해서 갖는 인상을 통제하고 관리하려고 하는 것은 타인에 비친 자신의 얼굴(looking glass self; Cooley, 1922)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타인에 비친 나의 모습이 갖는 사회적 얼굴은 사회성보다는 행위자 자신의 주관성을 더 포함하고 있다고 추론된다. 따라서 자신의 주관성이 깊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 자신이 그러한 인상관리를 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고하는 것도 역시 타인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상관리가 타인의 사회적 호감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하는 것은 억제될 것이다. 따라서 자기검색척도와 자기제시척도가 사회적 호감척도와 부적 상관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체면지향척도의 하위척도인 구성적 체면지향척도는 사회적 호감척도와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이 결과로 보면, 구성적 체면지향행동으로 궁구성하려는 얼굴은 사회적 얼굴 또는 사회적으로 승인을 받는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즉, 구성적 체면지향행동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사회적 표상으로 공유하고 있는 체면에 부합하는 행동을 보이려는 사회성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방어적 체면지향행동은 행위자가 처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체면이 손상당하거나 손상당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지키려는 것이다. 요약하면, 서구의 사회적 얼굴은 자기 주관성이 깊이 관여되어 있는 반면, 우리의 사회적 얼굴(체면)은 자기 주관성이 덜 개입되고 사회적 신분과 지위에 맥락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차이점에 대한 주장은 앞으로도 계속 연구된 연구를 통하여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1에서 체면지향행동이 구성적 체면지향행동과 방어적 체면지향행동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라는 이론적 제안이 경험적으로 검증되었다. 체면지향행동이 이원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 가운데 하나는 체면지

향행동척도와 다른 척도들과의 상관관계 유형이다. 즉, 구성적 체면지향행동척도가 사회적 호감척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방어적 체면지향행동척도는 사회적 호감척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는 점이다. 두 번째 증거는 체면지향행동척도가 2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이다. 연구 1에서 체면지향행동척도가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단일모델과 2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2요인모델이 경쟁모델로서 검증되었다. 이들 모델에 대한 검증은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하였다. χ^2 분석결과는 두 모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두 모델의 χ^2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2요인모델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χ^2 는 표집 크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GFI, CFI, NFI 등과 같은 부합도 지표를 산출하여 두 모델을 비교한 결과는 2요인모델이 단일모델보다 더 부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체면지향행동척도의 측정오차를 보여주는 RMR의 경우에도 2요인모델의 경우 더 적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체면지향행동척도가 2요인모델로 구성되어 있음을 지지한다.

체면지향행동이 이원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또 다른 증거는 연구 2에서 얻어졌다. 대학교라는 상황에서 대학생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거나 또는 드러내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시하여 특정상황에서 바람직한 능력관리방식을 조작하였으나, 실험참가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체면에 대해서 타인으로부터 긍정 또는 부정적 평가를 받은 경우에 체면지향행동의 변화와 자존감의 변화간에 나타난 상관유형이 차이가 있었다. 타인의 평가가 긍정적인 경우는 구성적 체면지향행동의 변화와 방어적 체면지향행동의 변화 및 자존감의 변화간에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타인의 평가가 부정적인 경우에는 구성적 체면지향행동과 자존감의 변화간에 상관이 없었으나, 방어적 체면지향행동변화와 자존감의 변화간에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타인의 부정적 평가가 방어적 체면의 작용과 관련이 있으며, 방어적 체면이 작용할수록 자존감이 높았다. 이 결과는 구성적 체면과 방어적 체면이 서로 다른 심리과정에 의해서 작용하는 것이며

서로 다른 개념임을 보이는 것이다. 또한, 방어적 체면지향행동은 행위자 자신의 체면에 대해서 타인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작동함을 보여준다.

연구 2에서 체면지향행동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따라서 행위자가 경험하는 감정이 e달랐다. 타인의 평가가 긍정적일 때는 떳떳함을 느끼고 타인의 평가가 부정적인 경우는 부끄러움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체면이 예의범치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것이다(최상진, 2000). 본 연구자들의 가정과는 달리 타인의 평가로부터 경험되는 감정은 자존감의 변화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관의 방향은 예언한대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현재의 실험상황에서 실험참가자들이 떳떳함과 부끄러움을 체감하는 정도가 약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후속연구에서는 자신의 체면이 타인에 의해서 손상당하는 경우, 타인의 부정적 평가가 행위자의 자존감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떳떳함과 부끄러움과 같은 감정이 매개하는 지를 체계적으로 검증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 2에서는 실험참가자들이 자신의 체면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적절한 체면행위가 없었고 실험참가자가 경험하는 내용들이 자기평정방식으로만 얻어졌다. 체면의 역동성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향후연구에서 실제 상황을 담은 영상물 등을 이용하여 행위자의 구체적인 체면행위를 관찰하고 측정하는 방법(최상진, 한규석, 2000)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의 대상을 대학생 이외에 일반인으로 확대하여 연구 1과 연구 2에서 밝혀진 결과를 일반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인이 인식하고 있는 체면의 개념적 구조와 심리과정을 밝히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체면은 “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도리 또는 얼굴”라는 사전적 정의를 수용하고, 남을 대하기에 떳떳하다는 것이 무엇에 근거하는 지를 추론하였다. 본 연구자들은 남을 대하기에 떳떳하다는 자기지각이 자신의 신분과 지위에 적절한 또는 상응하는 인격, 능력 및 권위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 기초하고 있을 것으로 추론하였다. 이 가정은 신분과 지위와 같은 사회적 속성과 인격, 능력 및 지위와 같은 개인적 속성간의 일치성에 대한 판단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심리기제를 검증하지는 않았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제에 대한 검증과 아

올러 본 연구에서 밝힌 체면의 개념구조와 심리과정이 유교문화권인 중국과 일본 등의 다른 나라에서도 적용되는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에서 *Lian*은 도덕적 측면에서 인격을 나타내고(Cheng, 1984), 일본에서 *Mentz*는 특성상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자기를 방어하는 체면의 한 형태로 논의되고 있다(Lebra, 1976). 동일한 유교문화권에서도 체면의 개념구조와 심리과정이 상이할 수 있다. Kim과 Berry(1993)가 토착심리학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와 같이 체면에 대한 토착심리학적 연구들이 다른 나라와 다른 문화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연구활동은 토착적인 심리와 더불어 범문화적 일반이론을 찾는 데 매우 중요하다.

참 고 문 헌

- 안신호·이승혜·권오식(1994). 한국어 정서단어의 분석 : 정서단어의 유사성구조와 정서체험의 구조.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8(1), 150-175.
- 여동찬(1987). 異邦人이 본 韓國 韓國人. 서울 : 중앙일보사.
- 윤태림(1986). 한국인의 성격. 서울 : 도방도서.
- 이규태(1977). 한국인의 의식구조(상, 하). 서울 : 삼중당.
- 이석재(1996). 자기제시책략적도의 개발과 타당도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10(1), 115-136.
- 진승범(1995). 체면과 사회적 불안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최상진(1997). 한국인의 심리특성. 한국심리학회(편) 현대심리학의 이해(pp. 695-766). 서울 : 학문사.
- 최상진(2000). 한국인의 심리. 서울 : 중앙대 출판부.
- 최상진·김기범(2000). 체면의 심리구조.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4(1), 185-202.
- 최상진·유승엽(1992). 한국인의 체면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한 분석. 사회심리학회지 : 사회, 6(2), 137-157.
- 최상진·최인재·김기범(1999). 정(情), 체면(體面)민감성과 스트레스, 문제대응방식간의 관계. 1999년 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동계 학술대회발표회 논문집, 28-44.
- 최상진·한규석(2000). 문화심리학적 연구방법론.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4(2), 123-144.
- 최창호(1993). 체면과 자아존중감, 통제성향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청구논문.
- 최재석(1989).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 개문사.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 411-423.
- Arkin, R. M. (1981). Self-presentation. In D. M. Wegner, & R. R. Vallacher (Eds.). *The self in social psychology* (pp. 158-182).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Baumeister, R. F. (1982). A self-presentational view of social phenomena. *Psychological Bulletin*, 91, 3-26.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91, 3-26.
- Bentler, P. M., & Bonett, D. G. (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88, 588-606.
- Bollen, K. A. (1989). A new incremental fit index for general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17, 303-316.
- Breckler, S. J. (1990). Overall fit in covariance structure models : Two types of sample size effects. *Psychological Bulletin*, 107, 256-259.
- Briggs, S. R., Cheek, J. M., & Buss, A. H. (1980). An analysis of the self-monitoring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679-686.
- Brown, B. R., & Garland, H. (1971). The effects of incompetency, audience acquaintanceship, and anticipated evaluative feedback on face-saving behavior. *Journal of Experiment Social Psychology*, 7, 490-502.
- Cheng, C. Y. (1986). The concept of face and its Confucian roots. *Journal of Chinese Philosophy*, 12, 329-348.
- Choi, S. C., Kim, U., & Choi, S. H. (1996). Indigeneous

- analysis of collective representations : A Korean perspective. In U. Kim & J. W. Berry(Ed.), *Indigenous psychologies : Research and experience in cultural context*(pp. 193-210). London : Sage Publications.
- Cooley, C. H. (1922).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Rev. ed.). New York : Charles Scriber's Sons.
- Colvin, C. R., Block, J., & Funder, D. C. (1995). Overly positive evaluations and personality : Negative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1152- 1162.
- Cronbach, L. J. (1951). Coefficient alpha and the internal structure of tests. *Psychometrika*, 16, 297-334.
- Crowne, D. P., & Marlowe, D. A. (1964). *The approval motive : Studies in evaluative dependence*. New York : Wiley.
- Fenigstein, A., Scheier, M. F., & Buss, A. H. (1975). Public and private self-consciousness : Assessment and theor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3, 522-527.
- Goffman, E. (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New York : The Overlook Press.
- Harre, R., & Gillett, G. (1994). *The discursive mind*. London : Sage Publications.
- Jöreskog, K., & Sörbom, D. (1996). *LISREL VIII : User's Reference Guide*. Mooresville, IN : Scientific Software, Inc.
- Kim, U., & Berry, J. W.(Ed.), *Indigenous psychologies : Research and experience in cultural context*. London : Sage Publications.
- Leary, M. R., Tambor, E. S., Terdal, S. K., & Downs, D. L. (1995). Self-esteem as an interpersonal monitor : The sociometer hypothe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518-530.
- Lebra, T. S. (1976). *Japanese patterns of behavior*.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Lee, Suk-Jae, Quigley, B. M., Nesler, M. S., Corbett, A. B., & Tedeschi, J. T. (1999). Development of a self-presentation tactics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6, 701-722.
- Lennox, R. D., & Wolfe, R. N. (1984). Revision of the self-monitoring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1349-1364.
- Nunnally, J. C. (1978). *Psychometric theory*. New York : McGraw-Hill.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 Basic Books.
- Schlenker, B. R. (1980). *Impression management : The self-concept, social ident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 Monterey, CA : Brooks Cole.
- Snyder, M. (1974). Self-monitoring of express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0, 526-537.
- Stevens, C. K., & Kristof, A. L. (1995). Making the right impression : A field study of applicant impression management during job interview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0, 587-606.
- Tedeschi, J. T. (Ed.). *Impression management theory and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New York : Academic Press.
- Tedeschi, J. T., & Felson, R. B. (1994). *Violence, aggression, and coercive action*. Washington, DC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Tedeschi, J. T., & Rosenfeld, P. (1981). Impression management and the forced compliance situation. In J. T. Tedeschi(Ed.). *Impression management theory and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pp. 147 -180). New York : Academic Press.
- Tice, D. M., Butler, J. L., Muraven, M. B., & Stillwell, A. M. (1995). When modesty prevails : Differential favorability of self-presentation to friends and strang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1120-1138.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 Westview Press.

부 록

다음에 주어진 각 행동 서술문을 읽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아래의 행동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래의 행동을 하는 정도를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동그라미표를 하십시오.

매우												매우
드물게												자주
1	2	3	4	5	6	7	8	9				

1. 구성적 체면지향행동

<인 격>

- 23. 사소한 오해가 있는 경우 시시비비를 따지려 하지 않는다
- 38. 책임을 회피하기보다는 책임을 지려고 한다
 - 1.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할 때, 겸허한 태도로 받아들인다
- 19. 사회적 규범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함을 보이려 한다
 - 3. 공공장소에서는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동하기보다 공중질서를 지킨다
- 21. 대개 언행에 있어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조심한다
- 41. 서로 갈등이 있는 경우 누구의 잘못을 탓하기보다 서로 이해하자고 한다

<능력>

- 5. 상대방이 아는 것이 부족하더라도 모른 척하며 상대방을 추켜 세워준다
- 25. 경험이 많은 일이면 먼저 해보겠다고 나선다
- 34. 친구들과 함께 식사할 때, 당장 가지고 있는 돈이 별로 없더라도 낼 수 있는 만큼 낸다
 - 7.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부탁을 받으면 사양하지 않는다
- 31. 일의 성과가 좋으면, 그러한 결과가 나타난 배경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다
- 42. 적은 경제적 부담이라도 타인에게 전가하기보다 내가 지려고 한다
 - 9. 나의 능력이 남보다 떨어지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 보인다

<권 위>

- 2.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근엄하고 여유가 있는 표정을 짓는 편이다
- 11.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켜야 할 본분은 지킨다
- 13.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을 대할 때 품위있게 행동한다
- 29. 잘 모르는 사람과 사귀거나 대화를 할 때, 내 주변에 훌륭한 친구가 많다는 것을 암시하는 언행을 한다
- 17. 같은 값이면 유명상표가 붙은 물건을 구입한다
- 18. 남의 의견에 따르기보다는 나의 의견에 남들이 따르도록 한다
- 20.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전문용어나 어려운 말투를 많이 사용한다

2. 방어적 체면지향행동

<인 격>

- 24. 일이 잘 못된 것이 나 때문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비난도 받아들인다
- 15. 나에게 대해서 나쁜 소문이 있을 때는 사실의 진위를 끝까지 밝히려고 한다
- 27. 나를 비난하는 다른 사람의 허물은 가급적 덮어주려고 한다
- 14.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일이 있으면 자세히 해명을 한다
- 30. 내가 말을 실수하였을 때, 나의 본심은 아니었다고 다른 사람을 설득한다
- 10. 책임 같은 일을 잘 못한 경우, 상대방에게 그럴만한 까닭이 있음을 설명한다
- 32. 타인이 비난하는 경우, 그 원인을 찾아서 상대방을 설득시킨다

<능력>

- 8. 나의 약점은 가능한 다른 사람에게 들어내지 않으려고 한다
- 12. 게임에서 지면, 이겨볼 때까지 몇 번이고 게임을 계속하자고 한다
- 36. 내가 주도한 일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남이라고 더 잘 할 수 없다고 말한다
- 37. 일이 잘 풀린 것은 모두 주위사람들이 도와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 26. 일이 생각보다 잘 안되었을 때, 최선은 다했으나 어찌할 수 없었다고 말한다
- 39. 내 실적이 저조할 때에는 납득할 수 있는 사유를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
- 4. 특출나게 하기보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만큼만 한다

<권 위>

- 22.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고 나면, 속이 좁다고 하거나 않을까 걱정한다
- 40. 내 위신이 떨어질 수 있는 일을 해야할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남에게 말한다
- 35. 별로 내키지 않는 일을 해야할 때에는 명분이라도 있는 일인지를 따진다
- 33.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신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
- 6.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있으면 실리보다는 명분을 택한다
- 16. 여러 사람 앞에서 무시당할 수 있는 일은 사전에 피한다
- 28. 당장 이익이 되는 일이지만 합당한 것인지를 생각하여 결정한다

Two-Component Model of Chemyon-Oriented Behaviors

Suk-Jae Lee and Sang-Chin Choi

National Computerization Agency · Jungang University

Chemyon, social face in Confucian societies, has been observed as having influence on individual's behaviors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However, few studies have been undertaken to investigate its psychological structures and processes. The present studies were performed to (a) develop a Chemyon-oriented Behaviors Scale (COBS) measuring individual differences in proclivity for doing Chemyon-oriented behaviors, (b) examine the dimensions of Chemyon and (c) examine the effects of other's evaluation of Chemyon on self-esteem. The results of Study 1 indicate that the COBS is internally consistent and that the COBS shows adequate discriminant validit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demonstrates that Chemyon consists of two distinct components : constructive and defensive Chemyon, and that these two components are significantly correlated. In Study 2, when participants' ability Chemyon was negatively evaluated by an expert, they felt shame and defined themselves defensively, and reported enhanced self-esteem as compared to when they were not evaluated. Conceptual differences between Chemyon and social face in western culture are discussed.

Keywords: Chemyon, constructive chemyon-oriented behavior, defensive chemyon-oriented behavior, self-esteem, self-presentation tactics scale

원고 접수: 2001년 6월 20일
심사 통과: 2001년 7월 13일